

도시동향 City Tr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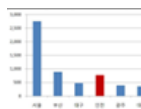
영국의 스포츠도시,
셰필드시
인천시는 2013년 전국
체전 및 실내무도 아시
안게임, 2014년 인천..

IDI 소식 IDI News



'정전 60주년, 화해와
평화'학술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와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
은 지난 7월 25일..

인천지표 Incheon Index



인천의 공공체육시설 지
표와 아시안게임..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육상경기..

IDI 단상 IDI Platform



댄스스포츠 열정에 빠
져들어
연구원에서 인천 실
내&무도(無道)아시
아경기대회를 관..

칼럼

Column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인천시 도시마케팅
전략
도시마케팅이란 도시의 유무형의 자산들을 통
해 만들어진 산물을 기초로 하여 기업, 주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공간들..

IDI 연구

IDI Research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행
사 연구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하 "인천AG")
가 스포츠 행사를 넘어 40억 아시아인이 화
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포츠·문화예술..

줌인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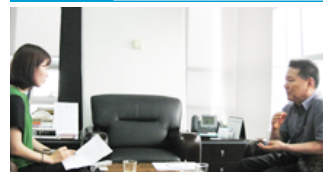
ZoomINcheon



최초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인천 송현시장
송현시장은 동구 송현동 90번지 일원에 위치
하고 있으며, 일제시대와 1960년대에 걸쳐 이
루어진 서민시장으로 일제시대와 1960년대..

인터뷰

Interview



인천시민이 주인 되는 2014 인천아시
아경기대회 지역발전의 성장..
아프리에 84호에서는 2014 인천아시아경
기대회 조직위원회 서정규 제1사무차장을
만나 얼마전 폐막한 실내무도아시아경기..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인천시 도시마케팅 전략

홍진배 _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교수

도시마케팅이란 도시의 유무형의 자산들을 통해 만들어진 산물을 기초로 하여 기업, 주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 이미지, 제도, 공간들을 개발하여 외부에 알리고 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도시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일련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국제화와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내외적으로 좋은 도시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각 도시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국제화와 세계화의 물결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지역만의 독특한 개성을 개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내외적으로 좋은 도시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각 도시들은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마케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도시마케팅의 중요한 도구로 스포츠이벤트가 이용되고 있으며 실제로 스포츠이벤트의 개최를 통해 개최도시가 얻는 유무형의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밝혀져 왔다. 먼저 도시에 주는 긍정적 경제적 파급효과(경제성장, 고용촉진, 지역발전 등)를 들 수 있으며 스포츠이벤트 개최는 도시의 인지도를 높이고 좋은 이미지를 조성하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평가된다. 도시의 차별화된 문화, 관광 및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이를 이벤트 참가자와 관광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스포츠 이외의 부가적인 도시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도시 내의 기업이 대회의 공식후원업체나 공급업체로 참여할 경우 이벤트는 기업의 홍보와 마케팅 도구로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특히 아시아경기 대회와 같은 국제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한다면 스포츠 이외에 세계 여러 도시들과 학술, 문화, 예술 교류가 확대되고 각국의 유력인사들이 방문하는 국제 외교의 장이 마련되어 도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역 스포츠마케팅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 스포츠이벤트의 개최는 미디어 중계, 기업의 후원, 이벤트 관련 상품의 디자인 및 판매, 각종 광고권 판매, 스포츠시설의 활용도 증대 등 개최 도시에 일련의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 스포츠마케팅 활동영역을 넓히고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한 도시주민의 자부심 증대, 일체감과 공감대 조성 및 단결력을 강화시켜주며 각종 레저스포츠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여가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과 동기를 제공해 주어 도시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도시마케팅에 성공한 대표적 사례로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들 수 있는데 1992년 하계올림픽을 통하여 도시의 숨겨진 매력(세계적인 건축가 가우디의 건축물)을 세계에 과시하여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였고 바르셀로나의 첨단산업 (디자인, 건축 관련 산업, BT, IT산업 등)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설정, 올림픽 기간 내에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에 홍보하였다. 그 결과, 유럽도시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위치를 종합 측정한 순위에서 올림픽 이전 11위에서 이후 6위로 향상되었다. 이렇듯, 세계 여러 도시들은 스포츠이벤트 개최를 통하여 도시의 이미지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벤트를 활용한 도시마케팅으로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인천 역시 이 대회를 계기로 인천의 도시브랜드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을 통해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중심지로서의 비상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이벤트를 이용한 도시마케팅이 일시적인 아닌 지속적으로 성공되기 위해서는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창출된 인천의 대내외적 인지도와 이미지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국제 또는 중소 규모의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여 인천의 스포츠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이러한 지속성이 결여될 경우에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를 통해 창출된 인천의 도시브랜드 상승이라는 무형적 효과는 점차로 쇠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제스포츠이벤트의 개최는 행사기간 동안 세계에 다양한 방향으로 보도되는 기회를 갖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세계의 다양한 언론매체는 개최도시의 긍정적 측면이 아닌 부정적인 부분과 기간 중 발생하는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뉴스로 생산 보도할 수 있다. 2008년 북경올림픽 때의 환경문제, 2012년 남아공월드컵 때의 개최준비의 부족과 치안부재 문제 등은 개최도시의 대외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아시아 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이벤트 개최에 있어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관리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스포츠를 통한 도시마케팅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지금의 스포츠 이벤트는 매우 상업화되어 있어 개최도시의 도시마케팅보다는 기업들의 마케팅 각축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포츠이벤트가 기업성과 상업성이 중심으로 강조된다면 개최도시의 이미지 대신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행사가 될 수 있으므로 스포츠이벤트의 지나친 상업성은 도시마케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개최도시가 자랑하는 특정지역과 경기장 시설 주변을 재정비하여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이 도시마케팅의 중요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한 도시개발이 특정지역에만 편중될 경우 이는 도시의 균형적 성장과 발전에 저해되고 장기적으로는 스포츠이벤트 개최 후 또 다른 도시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이벤트의 개최가 개최도시 인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단기적 계획과 비전 없이 단지 인천지역 경제적 효과와 브랜드 효과만을 기대하여 일시적으로 스포츠이벤트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정으로 인천지역경제와 도시이미지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스포츠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최하여 이를 도시 마케팅에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인천시민이 주인 되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될 것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제1사무차장 서 경 규

아프리에 84호에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서경규 제1사무차장을 만나 얼마전 폐막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의미와 성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대회 추진상황과 애로사항 및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당부를 들어보았다.

Q. 얼마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개최되었는데, 대회 개최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 OCA(아시아올림픽 평의회) 회의국 45개국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국제대회는 총 5개로 아시아경기대회, 동계 아시아경기대회, 실내무도아시아게임, 유스대회, 비치대회가 있으며, 이번에 개최한 실내무도아시아게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원래 실내무도아시아게임은 무도대회와 실내대회를 통합한 것으로, 이번 인천대회가 통합대회로는 첫 대회인 셈입니다. 예전 무도대회 및 실내대회의 경우, 한-중-일이 대부분의 메달을 획득함에 따라 비교적 스포츠 약소국들은 소외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는 중국 29개, 한국 21개, 일본 3개의 금메달을 획득(53%), 비교적 다른 아시아 국가에 균등한 기회를 부여했던 것이 본 대회의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11년 1월에 대회가 최종 결정된 이후 2년여 만에 국제대회를 준비하고 치러낸 것을 OCA에서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홍보를 해도 카바디, 크라쉬 등의 생소한 종목들에는 시민 참여와 관람객이 부족했습니다만 OCA의 입장과 상대적으로 스포츠 소외국인 나라들에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앞으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하는 나라에서는 낯선 종목들에 대한 육성 방안 등도 다각도로 모색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아시아 모든 나라가 두려리가 되지 않고, 화합하는 대회로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생각합니다.

Q.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의 유치 목적 중에 하나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기 전, 종합적인 사전 점검 차원의 테스트 이벤트 성격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제대회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대회를 준비해 시행 착오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 조직위 측면에서 볼 때, 문화행사, 선수촌 운영, 안전성과 홍보 등에 따른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사전실습의 기회가 된 셈이라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Q.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A : 제17회를 맞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2014년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16일간 인천시 일원에서 45개국이 참가하는 규모로 열리게 되며 올림픽 종목(28개)과 비올림픽 종목(8개) 포함 36개 종목으로 경기를 하게 됩니다.

조직위는 OCA로부터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을 위임받아 총괄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크게 13,000여명의 선수들과 7,000여명의 미디어 관계자들을 위한 숙소, 49개 경기장 및 미디어 센터에 따른 부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행정상의 이유로 예정보다 공기가 미뤄진 것은 사실이나,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원만히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중앙정부의 지원 또한 약속이 된 상태라 차질없이 준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Q.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준비하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A : 한때 아시아경기대회를 반납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조직위는 이리저리 뛰면서 시민 참여를 유도하는 등 애를 쓰고 있었고, 중앙 정부와도 협의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 시점에서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반납이라는 말이 나와서 상심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정리되었고, 다행이라고 여깁니다.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침체된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투자 유치에 늘리는 인천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Q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당부의 말씀은?

A :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우수 선수들과 스타 선수를 발굴하는 각축장이 되는 것은 물론 스포츠 발전에 기반을 둔다는 것에 중점을 두어 대회를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87만 여명의 관광객을 맞이하는 인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와 봉사로 인천 시민이 주인된 대회를 만드는 것이 성공적 개최에 따른 열쇠가 될 것이라 봅니다. 더불어, 바람이기는 하나 북한의 참가를 이끌어 내서 보다 뜻깊은 화합의 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실무적인 준비를 하는 것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 인천이 애항심이나 정체성이 없는 변두리 도시라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있었으나 2014 아시아경기대회를 성장동력으로 삼아 건전한 시민 의식과 함께 국제대회를 세 번째 치른다는 자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인천시와 우리 조직위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대담:조혜정(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 기록·사진:강순지(정책연구실 연구기획팀)

최초의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인천 송현시장

조혜정 _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

송현시장은 동구 송현동 90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제시대와 1960년대에 걸쳐 이루어진 서민시장으로 1960년 이전에는 난전형태로 개설된 시장이다. 시장 규모는 대지면적 4,417㎡, 매장면적 3,864㎡, 건물연면적 7,439㎡의 규모이며, 점포수는 146개, 상인수는 196명에 해당한다. 취급품목은 야채, 과일, 생선, 잡곡, 반찬거리, 떡, 어묵 등 식재료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선, 숙녀복, 인테리어 업종 등의 점포가 일부 구성되어 있다.

송현동 일대는 제물포 개항 당시, 조계 설정에 따른 조선인 이주 정책에 의해 조성된 지역으로 인천시 근현대사의 주요무대가 되었던 곳으로 인근에는 수문통, 배다리 등 물과 관련된 자원, 수도국산 달동네, 중앙시장, 양키시장 등 서민생활문화자원, 냉면골목, 순대골목 등 식음관련 자원, 화도진공원, 송현배수지제수변실, 한국철도 최초가공지기념비, 창영·영화초등학교 등의 자원이 분포되어 있다.

송현시장은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시범사업으로 2008년 선정되어 국비 및 시비 약 70억원의 예산 지원을 받아 문화시설 설치(사랑방 등), 문화체험 콘텐츠 개발(골목투어코스 개발 등), 공공디자인 개발(간판정비 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송현시장 현황 및 추진사업 내용

구분	내용	
소재지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90	
개설일자	1960년	
시장구분	시장등록	인정시장 (2005.6.15), 상설시장
	시장형태	상가주택복합형 시장
	시장규모	중형시장 (100개 이상~500개 미만)
점포수	총 141개	자기점포소유(26), 임대(115)
상인 수	260명	자영업 종사자 238명
		상용 종사자 20명
		기타 (노점상 등) 2명
면적	대지면적	4,417㎡
	매장면적	3,864㎡
	건물연면적	7,439㎡
주요사업	문화사랑방 매입 및 리모델링	- 사업기간 : 2010. 4. 21 ~ 2010. 09. 25 - 주소 : 송현동 88-19 - 건물현황 : 지하1층, 지상3층 - 주요시설 · 1층 북카페, 배움센터, 수유실 · 2층 작은 도서관 · 3층 상인회 사무실 및 주민문화교육시설 등
	송현시장 아케이드 등 환경개선사업	- 사업기간 : 2009. 6. 24 ~ 2010. 6. 22 - 위치 : 송현동 90번지 일원 - 규모 : L=280M, B=5~7.5M - 사업내용 : 아케이드설치공사, 비가림막, 바닥포장, LED조명 등 설치
	송현시장 조경공사	- 사업기간 : 2010. 3. 8 ~ 2010. 6. 29 - 위치 : 송현동 9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하늘공원, 벽천 및 우물공원 설치 등
	송현시장 홍보용 LED전광판 설치	- 설치일 : 2011. 11. 19 - 위치 : 송현동 90번지 일원 - 사업내용 : 전광판 2개소, LCD TV 6개소 설치
	골목문화해설사 양성 및 투어코스 개발	- 골목문화해설사 양성 · 협약체결 : 사단법인 해반문화사랑회 (2010. 6. 7) · 교육기간 : 2010. 08. 11 ~ 8. 27 (13일간) · 수료인원 : 40명 - 골목투어 코스개발 : 2010. 10월
	송현시장 주변 관광지 연결 사업	- 사업기간 : 2012. 3월 ~ 2012. 12월 - 위치 : 송현시장 ~ 달동네박물관 - 사업내용 · 인도 확장 및 신설 · 송현리 경계도로 조성 및 장유실터 고가 조성 등

자료 :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 (www.sijangtong.or.kr), 동구청 내부자료 참고 재작성

송현시장 입구 - 문화관광형사업 추진 전	송현시장 입구 - 문화관광형사업 추진 후
	
송현시장 내부 - 문화관광형사업 추진 전	송현시장 내부 - 문화관광형사업 추진 후
	
송현시장 쉼터	송현시장 사랑방
	

송현시장은 최초의 문화관광형 시범시장으로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전통시장과 지역문화자원을 결합, 전국 전통시장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겨질 만큼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취재를 하는 동안 잘 정비된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송현시장이 송현동 일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형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 뿐만 아니라 상인과 주민이 주인이 되는 시장, 문화가 살아있는 전통시장의 모습으로 인천시민과 관광객에게 오래도록 기억 될 수 있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돌아왔다.

참고자료

동구청 내부자료

시장경영진흥원 홈페이지(www.sijangtong.or.kr)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지원센터(2008),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한 연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시장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화봉송행사 연구

김 창 수 _ 인천도시인문센터 센터장

1. 연구 배경과 목적

-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이하 "인천AG")가 스포츠 행사를 넘어 40억 아시아인이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포츠·문화예술 종합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인천AG의 차별화된 성화봉송행사 필요성이 제기 되었음
- 대회조직위원회는 40억 아시아인이 국가, 종교, 이념을 넘어 화합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성화봉송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새로운 성화봉송행사 모델을 새로 정립하기로 하고 45개 NOC회원국 및 국내 17개 광역시도별 축제와 문화행사를 연계하여 지역특성이 담긴 의미 있는 성화봉송행사 계획수립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였음

2. 연구 개요

- 주요연구내용은 인천AG 성화봉송행사 컨셉트설정 및 추진방향, 인천AG 성화봉송행사 프로그램 발굴하여 인천AG만의 차별화된 성화봉송행사 추진계획 제시하는 것이며, 각 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고려한 내실 있는 성화봉송행사 추진방안을 제시하였음.
- 또한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성화채화에서 개막식장 입장까지의 성화봉송행사 전체 로드맵 제시하고 이를 추진하기위한 인천AG 성화봉송행사 사업추진 조직과 및 운영체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였음.

3. 성화 채화와 봉송

○ 아시안게임 대회별 성화봉송 사례 검토와 시사점

- 성화채화 : AG 성화채화의 전통이 확립되지 않은 관계로 대회마다 다른 장소에서 채화를 하거나 국외 채화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개최국 국내 채화의 경우 역사적 문화적 특성이 분명한 장소를 채화지로 선정해왔음. 따라서 성화채화의 전통을 수립할 수 있는 상징적 장소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화합화 : 개최국(도시)의 상징적 장소에서 채화한 성화와 해외에서 채화된 성화의 합화는 화합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장소에서 실행되어 왔음. 인천AG는 남북간 대립의 상황에서 갈등을 극복하고 화해와 평등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성화봉송 : 봉송로는 가급적 많은 지역을 경유할 수 있는 노선을 선택하고 각 노선에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하여 특성화해왔음. 봉송방법으로는 주자들의 경주 방식 뿐 아니라 마차, 선박,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 수단을 활용하고 있으며, 복장도 유니폼 외에 특색 있는 특정한 인물 가장, 지역 고유 복장 등을 활용하고 있음. 성화봉송로의 컨셉트와 명칭을 부여하고, 봉송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아시아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역을 특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행사 : 주로 국가와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알리는 행사를 연계하여 개최해 왔음. AG의 정신과 의미, 봉송 컨셉트에 부합하는 행사에 대한 선정기준을 제시하여 해당 국가 및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을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해외채화지

- 해외채화지 검토결과 에베레스트 산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기후변화, 채화의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변수가 많아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 인도 레드포트의 경우 제1회 AG 성화채화지로서 AG 성화채화의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주변부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여 성화채화의 안전성 확보가 어려움. 이에 비해 인도국립경기장의 경우 레드포트에 비해 주변 환경이 안정적이고 OCA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판단됨.
- 인도 뉴델리 인도국립경기장을 후보지로 제안하되 레드포트도 의미 있는 채화지이므로 예비 후보지로 제안함.

○ 국내채화지 검토결과

- 국내채화지의 경우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 백령도 심정각, 5대강 발원지, 백두산, 안산시 다문화마을을 각각 검토하였음.
- 마니산 참성단은 전국체전의 공식채화지로 전국적 인지도가 높고, 2013인천실내무도AG 채화지로 선정되어 국제대회 채화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음. 남북한의 갈등 극복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나 다만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라 백두산 채화가 성립된다면 메시지가 중복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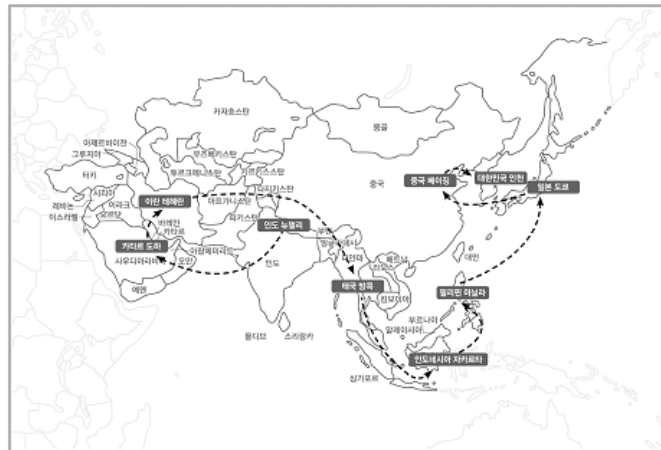
- 5대강 발원지의 경우 5개 장소에서 동시에 채화하기 때문에 성화채화의 관심도를 분산시킬 가능성이 있음. 안산시 다문화마을은 성화채화지 보다 봉송 경유지로 선정하여 주요 문화행사 장소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 백두산의 경우 남북한의 평화적 이미지를 구현할 수 있으나 북측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예비안으로 추천하였음.
- 국내채화지로 마니산 참성단을 후보지로 제안하되, 백령도 심청각과 백두산의 경우도 의미 있는 채화지이므로 예비 후보지로 제안하였음.

○ 합화지 검토

- 합화지의 경우 국내에서 채화된 성화와 해외에서 채화된 성화의 합화식이 개최될 장소로, 화합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곳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인천도호부청사, 송도 국제도시, 인천광역시청, 자유공원, 해외채화지(인도뉴델리), 마니산 합화지 대안들 모두 합화지로서 의미가 있고 합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간을 갖추고 있으나, 해외봉송이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내에 도착할 경우 이동로 측면에서 인천공항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인천국제공항을 후보지로 제안하되, 송도 센트럴공원과 인천항 제1부두도 의미 있는 합화지이므로 예비 후보지로 제안하였음.

○ 해외봉송로 검토 및 제안

- 해외봉송로의 경우 '역대 AG 개최국 봉송', 'AG 미개최국 봉송', 'AG 미개최국 포함 개최국 봉송', '아시아 주요 항구도시 봉송', '채화지-국내 직접봉송' '인천AG 직전 개최지 및 차기 개최지 봉송'을 각각 검토하였음.
- 역대 AG 개최국 봉송은 AG의 역사와 전통을 환기시킬 수 있고 안정적인 성화봉송행사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음. AG 미개최국 봉송은 개최국 안전 성과 항로구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음. 따라서 AG 미개최국 포함 개최국 봉송의 경우 AG의 역사와 전통을 환기시킬 수 있으나 개최국 봉송이나 미개최국 봉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됨.
- 아시아 주요 항구도시 봉송의 경우 봉송로가 해양도시 중심으로 구성될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돼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채화지에서 국내로 직접봉송하는 경우 소요시간 및 비용이 적어 실현가능성은 높지만, AG정신 구현 여부는 낮게 평가됨.
- AG 직전 개최지와 차기 개최지 봉송의 경우 집중 홍보하는 효과가 있고, 소요시간과 예산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높아 예비 후보안으로 제안함.
- AG 개최국 봉송을 후보안으로 제안하되, AG 미개최국 포함 개최국 봉송과 인천AG 직전 개최지 및 차기 개최지 봉송도 의미 있는 봉송로로 평가되어 예비 후보안으로 제안함.



역대 AG 개최국 봉송 노선도

○ 국내봉송로

- 국내봉송로의 경우 '5대강 유역 봉송', '조선시대 옛길(10대로) 봉송', '봉수로와 파발로 봉송'을 각각 검토하였음.
- 국내봉송로 검토결과, 5대강 유역 봉송의 경우 수로자체를 이용한 봉송이 어렵고, 강변로 주변의 인구 밀집도가 낮아 실현가능성과 홍보효과 측면이 낮게 평가됨, 봉수로는 봉수대까지 접근이 어렵고, 파발로는 남한의 경우 서울-부산 간 종단만 있어 여러지역을 경유하기 어려움, 역로는 노선과 경유지에 대한 고증이 충분치 못해서 실현가능성이 낮게 평가됨.
- 조선시대 옛길(10대로) 봉송은 고유성과 실현가능성 측면 모두 높게 평가되었으며, 문화행사의 연계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높은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조선시대 옛길을 재현하여 옛길의 주요 지역을 경유하는 봉송로를 후보안으로 제안하였음.





인천아시아게임 전국봉송 주요 경유지



전국봉송노선도

4. 성화봉송 주자 선발 및 연계 문화 행사

- 성화봉송주자는 시군구 단위로 추천 선발하는 일반 주자와, 조직위원회에서 선발하는 특별주자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 주자 선발시, 해외봉송에는 재외 동포를 포함하고 국내봉송에는 한국에 이주하거나 체류 중인 아시아 각국인을 포함하도록 제안하였음.

구분	계	최초 주자	최종 주자	특별 주자			일반 주자		
				소개	주주자	호위주자	소개	주주자	호위주자
선발인원	5,004	1	1	988	108	880	4,014	446	3,568
선발기관		조직위	조직위		조직위	조직위		시·군·구	시·군·구

국내봉송 주자별 선발기관

- 성화봉송연계문화행사는 성화봉송기본방향에 부합하고, 성화봉송 경유지를 대표하는 행사, 그리고 다수의 주민 참여가 가능한 문화행사가 바람직함.
- 경유지별 성화봉송연계문화행사를 위한 사전공모, 심사와 선정, 행사 내용 및 시기 확정과 행사예산지원 등의 절차는 일정표에 의거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 연계문화행사는 개최 단계에 따라 사전연계문화행사, 채화연계문화행사, 합화연계문화행사, 봉송연계문화행사로 나눌 수 있고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구분		내용	예시
사전연계 문화행사	-	성화봉송의 홍보를 위해 행사 전에 개최되는 문화행사	(한국의 옛길) 전국 학술대회
채화연계 문화행사	식전행사	성화채화식 전에 개최되는 문화행사	강화군립합창단 공연
	식후행사	성화채화식 후에 개최되는 문화행사	
합화연계 문화행사	식전행사	성화합화식 전에 개최되는 문화행사	인천시립무용단 ‘환영’
	식후행사	성화합화식 후에 개최되는 문화행사	

봉송연계 문화행사	환영행사	각 시군구에 성화봉송단 도착 시 개최되는 문화행사	각 지자체에서 준비한 행사
	숙박지행사	각 숙박지에 성화 안치 시 개최되는 문화행사	
	환송행사	성화봉송단이 숙박지에서 출발 시 개최되는 문화행사	

연계문화행사 단계별 구분

영국의 스포츠도시, 셰필드시

성민정 _ 도시경영연구부 초빙연구원

인천시는 2013년 전국체전 및 실내무도 아시안게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맞이하여 스포츠이벤트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효과를 기대하는 가운데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및 도시마케팅에 관한 전략적 관리체계를 구체화할 시기이다. 이 글은 국외 지자체의 스포츠이벤트 활용 사례 중에서 셰필드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셰필드시는 영국 요크셔 남부지역에 입지하고 인구 53만명을 보유한 도시이다. 셰필드시는 19세기 국제적인 명성을 떨친 영국 철강 산업의 중심도시였으나, 1980년대 초 철강업의 쇠퇴와 탄광산업의 몰락으로 급속히 쇠락한 도시가 되어 일자리 감소, 높은 실업률, 인구유출 등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셰필드시는 경제 부활을 통해 활력있는 도시가 되었다. 셰필드시의 경제 부활과정에 여러 요소가 작용하였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스포츠이벤트 유치 전략으로 셰필드시는 영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국가스포츠도시 'National City of Sport'로 인정받았다.

셰필드시는 1991년 세계학생경기대회(World Student Games¹⁾)를 유치한 이후, 세계학생경기대회를 위하여 25,000석 규모의 육상경기장인 돈밸리종합운동장(Don Valley International Athletics Stadium)을 조성하였고, 폰드포지국제수영장(The Ponds Forge International Diving and Swimming Complex)을 건설하였다. 또한 2003년 국립빙상장인 아이스셰필드(IceSheffield)를 개관하였고, 인공스키리조트인 셰필드스키빌리지를 만들었으며, 이외에 골프, 등산, 볼링시설을 보유하며, 영국체육원(English Institute of Sport : 약칭 EIS, 복싱장, 실내육상장, 실내체육관 보유)을 유치하는 등 시의 정체성을 스포츠도시로 형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전국적인 대표성을 갖는 스포츠도시가 되었다.

폰드포지국제수영장



셰필드 아레나 공연



자료 : 셰필드인터내셔널베뉴 홈페이지 www.sivltd.com

셰필드시는 보유한 다양한 스포츠시설을 기반으로 스포츠대회, 전지훈련팀의 유치, 시설 운영을 전담하는 셰필드인터내셔널베뉴(Sheffield International Venue : 약칭 SIV)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스포츠이벤트를 유치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운영하여 왔다. SIV가 2009년에 유치한 스포츠이벤트는 2개의 세계 스포츠대회, 7개의 세계선수권대회, 12개의 영국선수권대회이며, 프로스포츠 경기 유치에 따른 스포츠 관광객은 연간 5만명, 이로 인한 관광수입은 700만 파운드(112억원)로 추정된다. 셰필드시의 스포츠이벤트 전략의 특징은 대규모 스포츠이벤트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스포츠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유치 개최하였고, 총괄단체와의 관계 강화를 도모하여 스포츠이벤트 개최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후에 보다 큰 스포츠이벤트 유치 개최로 이어가도록 대응하였다는 점이다. 이외에 SIV는 종합운동장, 셰필드아레나, 실내체육관, 시청을 활용하여 연간 수백건의 음악콘서트를 개최하였고, 셰필드시의 스포츠시설을 전지훈련시설화하여 국가대표선수단이 전지훈련과 8개 영국경기단체 연맹사무실을 유치하였으며, 엘리트선수 육성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진흥의 주체 역할을 수행하여 종목별 클럽, 유소년팀 등을 통해 주민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였다.

이와 같이 SIV는 스포츠시설 운영 및 스포츠이벤트 유치, 엔터테인먼트, 지역사회 스포츠레저 지원을 사업영역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시청과 셰필드인터내셔널, 영국체육원, 셰필드 소재 대학교의 체육대학 및 스포츠 과학연구소가 스포츠 비즈니스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셰필드시의 스포츠이벤트를 활용한 지역발전 사례에서는 스포츠시설 관리운영 전담기관 설립, 다양한 규모의 스포츠이벤트 유치 지속, 콘서트 등 문화이벤트 개최, 국가대표선수단 전지훈련 유치, 영국경기단체 연맹사무실 유치 등을 통하여 영국의 대표적 스포츠도시로서 위상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인천시에 시사하는 의의가 있다.

1) 세계학생경기대회는 유니버시아드의 전신인 종합운동경기이다.

‘정전 60주년, 화해와 평화’ 학술회의 개최

인천광역시와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7월 25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정전 60년, 화해와 평화”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학술회의의 1부에서는 정병호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교수가 “다양성의 공존과 평화정착의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으며, 2부에서는 실향민, 이산가족, 북한 이탈주민, 사할린동포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인터뷰 영상을 상영했다. 곧이어, 인천출신의 대표적 여성학자인 오한숙희씨가 진행하는 “분단과 정착, 그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번 학술회의는 정전 60주년을 맞아 인천에 거주하는 실향민, 이산가족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사할린 동포들의 삶을 재조명하는 자리로 인천시민의 삶 속에 아로새겨져 있는 전쟁과 분단의 흔적과 아픔을 성찰하고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갈 과제와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천 인물선정 방향 정립 토론회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의 인천도시인문학센터(센터장 김창수)는 <인천 인물선정 방향 정립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7월 18일,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천 정명(定名) 600년을 기념해 인천의 역사 속 인물 ‘기억하고 싶은 인물, 남기고 싶은 인물’을 발굴, 선정하고 인천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

송영길 시장은 이날 축사에서 "인천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한 인물 가운데 큰 업적이 있는 인물을 선정해 인천인의 롤모델을 제시하고, 인천의 정신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우리 연구원은 미추홀 건국으로부터 고려와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까지, 인천에서 출생하거나 활동한 인물 가운데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에 기여도가 높은 인물, 문화·역사·학술·정치 등 각 분야별 대표적 인천 인물을 제안했다.

또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발표자들은 △역사적 근거와 사실을 토대로 생몰년 및 활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인물 △일정한 평가가 이뤄진 인물 △실제 활동과 업적을 중심으로 서술된 인물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한편 우리 연구원 관계자는 "토론회 개최 이후 추가적인 자문회의를 거친 뒤 그 결과를 인천시민의 날인 10월 15일에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발연-기타큐슈시립대학 연구교류 제 7회 공동연구발표회 개최

우리 연구원(원장 김민배)은 기타큐슈시립대학(학장 미치야키 곤도)과 지난 7월 12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인천과 기타큐슈의 관광분야 도시정책 연구사례'를 주제로 공동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7번째인 이번 행사는 지난 2006년에 체결한 연구교류 협정에 의거, 도시정책사례의 상호 벤치마킹과 연구성과의 심화를 위해 매년 윤번제로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우리 연구원 심진범 연구위원이 인천의 지역자산인 '섬'을 기반으로 '예술관광'을 접목하여, "예술 관광을 통한 新관광정책 전개 : 인천시 섬 관광정책의 대안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인천도시공사 소연수 문화스포츠팀장은 최근 성과를 내고 있는 인천의 대표적인 집객 이벤트 <펜타포트 음악축제>와 이를 연계·확대시킨 음악도시 사업에 대하여,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의 성과와 '음악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주제로 발표했다.

한편, 기타큐슈 측에서는 기타큐슈시립대학 도시정책연구소 이토 토키코(伊藤解子) 교수가 올해 시정 50주년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유치하여 교류 인구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는 기타큐슈시의 사례 중, "기타큐슈시 산업관광의 과제"를 주제로 지역자원인 '산업관광'에 주목한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또한 기타큐슈시립대학 도시정책연구소 미나미 히로쉬(南 博) 준교수가 기타큐슈 프로축구팀의 노력과 <B-1 그랑프리 음식축제>의 경제파급효과에 대하여, "기타큐슈시의 집객 이벤트로 거리의 활력 만들기"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시군구 관련 공무원과 유관기관 실무자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유/무형의 기존 지역자산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2014년 아시아 경기대회 이후, 인천은 과연 어떤 관광정책으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할지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었다.



중, 조장시 설성구위원회 당서기 등 내원 간담회 개최

지난 7월 11일, 중국 조장시 설성구위원회 당서기(Wu Lei) 일행이 우리 연구원에 내원해 연구원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광역시 발전상과 미래 발전전략, 도시

계획 등과 관련한 내용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인발연-연변대 민족연구원 공동 〈중국 동북진흥과 초국경협력〉 한중 국제 학술대회

인천발전연구원(원장: 김민배)은 지난 6월 28일 오후 2시, 중국 연변대(延邊大) 민족연구원(民族研究院)과 공동으로 '중국 동북진흥과 초국경협력'을 주제로 한중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변대 경제학원 첸즈난(權哲男) 교수가 '중국 창지투 개발과 교통·물류체계 구축 현황', 연변대 민족연구원 쑨춘리(孫春日) 원장이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중 관계 내실화와 인문 유대', 그리고 인천발전연구원 김수한 연구위원이 '경제특구 법제를 중심으로 한 북-중 점경협력의 성공가능성 탐색'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원식(인하대), 김영봉(한반도발전연구원), 백학순(세종연구소), 김창수(인발연), 김운수(인발연), 김효은(인천시청), 김정훈(인천항만공사), 권오연(㈜한진), 이상근(삼영물류), 이용택(㈜청명) 등 학계 및 물류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중국 동북지역 개발이 동북아 초국경협력 그리고 한반도의 서해권역 물류에 주는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가졌다.

한편, 중국 동북부 창춘-지린-투먼장(長春-吉林-圖們江/두만강, 이하'창지투') 지역은 북한, 러시아, 몽골 등과 초국경 협력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동북아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이번 회의는 창지투 개발이 한국 및 인천에 갖는 의미와 영향을 탐색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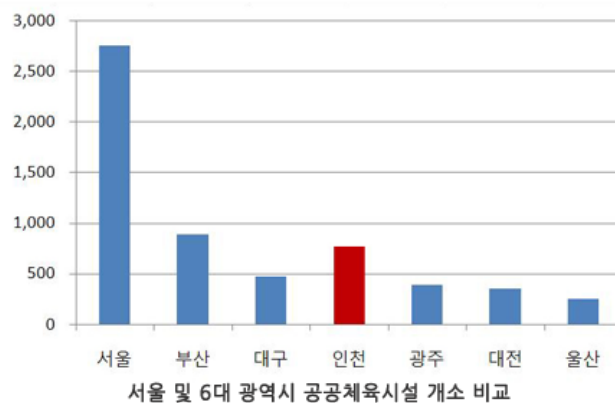


인천의 공공체육시설 지표와 아시안게임 신축 경기장 소개

김 영 은 _ 도시기반연구부 초빙연구원

1. 인천 공공체육시설 보유 현황¹⁾

- 서울 및 6대 광역시의 공공체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육상경기장, 양궁장, 승마장 등 몇 종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체육시설이 서울에 가장 많이 밀집해 있으며, 서울 2,751개소, 부산 889개소에 이어 인천에 773개 시설이 위치하여 인천은 세 번째로 많은 공공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 인구수 대비 공공체육시설 보유 비율로 보면, 인천이 2010년 이래로 주민 1만 명당 공공체육시설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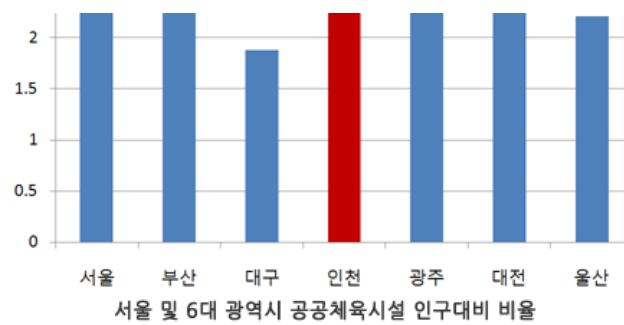
서울 및 6대 광역시 공공체육시설 보유 현황 (2012기분)

(단위 : 개소)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합 계	2,751	889	471	773	388	353	253
1. 육상경기장	3	3	4	2	2	3	5
2. 축구장	62	31	19	17	12	11	27
3. 하키장	1	1	1	1			
4. 야구장	12	8	5	5	2	1	1
5. 사이클경기장	1	1	1	1		1	
6. 테니스장	59	20	16	15	16	8	5
7. 씨름장		1	1			1	1
8. 간이운동장	2,354	751	382	685	313	277	181
9. 체육관	24	15	16	16	17	11	5
10. 전천후게이트볼장	4	6	1	4	5	7	5
11. 수영장	86	15	14	11	9	16	9
12. 롤러스케이트장	14	14	3	7	2	2	2
13. 기타	131	23	8	9	10	15	12

* 기타 시설에는 사격장, 국궁장, 승마장 등 10개 항목이 속함.





서울 및 6대 광역시 인구 1만명당 공공체육시설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09	2.3	1.89	1.35	2.16	5.32	1.91	1.93
2010	2.5	2.04	1.43	2.72	2.41	1.95	2.07
2011	2.58	2.24	1.43	2.75	2.54	2.23	2.19
2012	2.7	2.51	1.88	2.72	2.64	2.32	2.21

출처 : 안전행정부, '내고장 알리미'

2.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신축 경기장 현황

- 2014년 인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인천시 관내 원도심을 중심으로 10개 경기장이 신축되고 있다. 경기장이 모두 완공되면 인천시 공공체육시설 비율은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질 것이다.
- 아시아 경기대회 종료 후 경기장은 단순한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지역 주민의 거점 문화 공간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 신축 경기장 현황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신축 경기장 시설 현황

no	경기장	위치	용도	규모	용도
1	서구주경기장	서구 연희동	개 · 폐회식, 육상	연면적 105,000 m ² B1F/4F, 60,000석	2011.6~2014.4
2	강화경기장	강화군 강화읍	태권도, 유수	B2F/3F, 4,026석	2011.7~2013.8
			BMX	2F, 1,010석	
			골프장	36홀	

3	드림파크경기장	서구백석동	수영장	1,000석 이상	-
			승마장	1,500석 이상	
4	승림경기장	동구 승림동	실내배구장	B1F/3F, 5,010석	2011.6~2013.6
5	십정경기장	부평구 십정동	테니스, 스쿼시장	B1F/3F, 7,077석	2011.6~2013.7
6	계양경기장	계양구 서운동	배드민턴장	B1F/3F, 5,010석	2011.6~2013.8
			양궁장	2F, 1,420석	
7	송의경기장	남구 송의동	축구전용경기장	B1F/3F, 20,000석	-
8	문학수영장	남구 문학동	실내수영장	B1F/3F, 3,004석	2011.5~2013.5
9	선헌경기장	연수구 선헌동	하키경기장	B1F/2F, 5,010(주),3,074(보조)석	2011.11~2013.12
			유도, 레슬링	B1F/2F, 2,050석	
10	남동경기장	남동구 수산동	체조경기장	B1F/3F, 8,100석	2011.6~2013.8
			럭비경기장	2F, 5,200석	

* 출처 :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홈페이지 (<http://www.incheon2014.kr>)

1) 전국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8조(보고사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정리한 것으로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임

댄스스포츠 열정에 빠져들어

백승아 _ 도시기반연구부 초빙연구원

연구원에서 인천 실내&무도(無道) 아시아경기대회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댄스스포츠 경기의 일부를 관람하였다. 2002년 월드컵 경기 이후 오랜만에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하는 데다가 댄스스포츠를 TV가 아닌 관람석에서 직접 보는 것도 처음이었기에 약간의 설레임을 갖고 출발한 것 같다.

삼산월드체육관에 도착한 우리 일행은 깜짝 놀랐다. 관람객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차장은 이미 만차였고 경기장은 생각보다 많은 관중들로 차 있었기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니 관람객의 연령층이 의외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댄스 스포츠에 대한 관심은 연령에 상관없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출전 선수에게 댄스 스포츠를 배우는 제자들로 보이는 어머니들이 어린 스승을 위해 열광적으로 응원을 하는 게 너무 좋아보였다.

안내 책자에 이날의 경기 종목이 적혀 있었다. 라틴 댄스인 차차차, 삼바, 파소도블레, 자이브와 스탠다드 파이프댄스가 이날의 경기 종목이었다. 라틴 종목에 속하는 댄스 종류는 최근 TV에서 방영하였던 "댄싱 위드 더 스타"를 통해 익숙한 이름이었지만, 스탠다드 파이프댄스는, 저게 뭐지? 저런 이름의 댄스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지켜보았다. 파이프댄스 차례가 되자, 파이프댄스가 댄스 이름이 아니라 스탠다드 종목 중 왈츠, 탱고, 비엔나 왈츠, 슬로우 폭스트롯, 퀵스텝으로 이루어진 5가지 댄스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기를 치르는 종목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경기를 지켜보면서 왜 같은 선수들이 퇴장하지 않고 계속 이어서 경기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세 번째 종목인 비엔나 왈츠 쯤에 가서 아~ 파이프댄스가 Five 댄스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다. 나만 몰랐던 것은 아니었겠지?

사실 관람 전까지는 댄스스포츠!! 재미있을까라는 걱정도 약간은 하고 있었는데, 경기 후반부에는 푹 빠져서 지켜보고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준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각 종목별로 2개조로 나뉘어서 여러 팀이 동시에 나와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눈을 어디에 뒀야 할지 모를 정도로 매우 빠른 경기진행과 라틴 댄스의 신나는 리듬에 빠져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샌가 경기가 끝나 있었다. 경기에 대한 느낌은 스탠다드 종목이 점잖고 고풍스러웠다면, 라틴 종목들은 의상도 화려했고 움직임도 역동적이었다. 개인적으로는 라틴 종목이 내 취향에 더 가까웠던 것 같다.



라틴댄스 종목의 선수들이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우와~~하는 감탄사를 연발하고 장내 아나운서의 소개 방송에 From Korea라는 멘트가 나오면 본능적인 반가움에 엄청난 환호를 하고 있는 그 순간의 나는 그곳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기장의 일부가 되었던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댄스스포츠를 즐기며 관람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특히 삼바 댄스에서 호피무늬 경기복을 입은 한국선수의 순서에서는 경기가 끝났을 때 나도 모르게 환호성을 질러 버렸다. 이들의 임팩트 강한 복장 뿐 아니라 열정적인 경기가 나의 혼에 불을 질렀다고나 할까...





예전에 “댄싱 위드 더 스타”라는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댄스스포츠가 재미있는 스포츠란 생각을 막연히 했었고, 신랑과 같이 시청을 하면서 취미로 배워보는 건 어떨까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날의 경기 관람에서 느낀 선수들의 아이컨택과 서로간의 호흡, 스킨십 등을 봤을 때 부부가 함께 하기에 아주 좋은 운동 중에 하나란 확신이 들었고, 꼭 신랑과 같이 배워보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관중들이 한국선수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응원을 집중했던 점이다. 국제 경기였던 만큼 외국의 선수들이 나왔을 때에도 한국선수들만큼의 힘찬 응원이 나왔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에 관람을 가게 될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나라 선수들 뿐 아니라 각국의 선수들에게 힘찬 응원을 해줄테다!